

인과법 과학적증명 '연구 화두'

산문박의 100년

해부학자 서영석 교수

고려대 해부학교실 서영석(徐英錫, 57)교수를 찾아가면서 알곳은 상상의 나라를 왔다. '인체와 소우주, 그 비밀을 보았을까' '칼(메스) 한자루로 시체와 나누는 대화는 무엇일까' '해부하는 이와 해부당하는 이의 화두는 어디에 있는가' 의학에 대해 문외한임을 밝히고 분위기가 과장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유전인자가 전생 정보

"해부학교실에서 어떤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포내의 신호전달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에서 어떤물질이 변화하여 자극을 유전자까지 전달하는지를 찾고있지요."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발'과 '시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동문서답'의 형상이 되고 말았다. 시체와 씨름하는 상상이 무뎠다. 무너지고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단나게 되어 취재하고자 했던 의도

세포는 핵과 염색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체는 단백질복합체인 유전자가 수십만개 들어있고 이 유전자는 대대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여기에서 서교수로부터 충격적인 가설을 더 들어보자.

"우리는 뇌에 축적된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쓰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이 정보는 유전자에 의해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이란 아버지 어머니의 생애이고 조상의 생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미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짐승 빌레등 미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마치 컴퓨터의 정보량이 많을 때 축약해 저장하듯이 유전자도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모든 생이 축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최첨단 방법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축약된 정보를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부·명예보다 '겸손' 신조로 기초의학 '외길 30년' "세포내 전달체계 숙제 풀면 전생 볼 수 있어요"

가 완전히 빛나고 싶었던 것이다. 해부학은 모든 의학의 기초로 크게 육안해부학과 미세해부학으로 나뉜다. 육안해부학은 인체의 여러 장기들의 구조와 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미 1백50년전 서구에서 정리가 되었다. 미세해부학은 쉽게 세포를 해부하는 최신 학문이다.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바로 신경과이다. 이는 세포와 세포간의 물질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 가설로만 남아 있다. 이 가설이 풀리게 되면 신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세포내의 전달체계를 밝히는 서교수의 연구가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유전자를 풀수 있게 된다. 이는 전생을 볼수 있게된다는 것을 뜻하고 부처님이 설한 '인'에 대한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된다.

서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늦어도 다음 세대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흥분이 송연해진다. 후손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부끄러운일을 들릴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교수는 다음 생애 앞선 현생을 어떻게 뒤고있을까. 당연히 성인근자처럼 살겠지"라며 혼자서 단정하고 생활철학을 들었다. "우리는 서로가 동반자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에게는 아버, 학생에게는 교수라는 동반자입니다. 연구실이

나 자동차등 무생물과도 동반자 관계입니다. 무엇이든 부속물로 삼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와 남은 동반자 관계

서교수는 특히 '겸손'을 강조한다. 의사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먼저 주문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절'을 든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마음이 고르지못했을 때의 폐해는 사회적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교수는 금년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지 30년이 됐다. 학창시절, 그림을 좋아했으나 가난과 대가족의 장남이라는 환경이 의과대학을 택하게 했다. 그 후 의사로서 사회적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기초의학 외길을 걸었다. 문득 고개들이

보니 후배들이 묵묵히 뒤따르고 있다. 험난한 길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갈수록 단단해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이 서교수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이다.

"의학을 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편안하고 오래 살기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살기보다는 인간답게 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교수의 '화두'는 '가설'이다. 전생을 밝히는 가설. 가설을 밝히기 위해 또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일은 괴물 마르케 한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작은 우주는 황홀하기 보다 의문덩어리만 더할 뿐이다. 그래도 포기하지않는 것은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준엽 기자

시대·마음·삼독심의 관계는

현재 받고있는 업장은 '전생의 모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생의 모습과 시대와 마음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으며 그 관계는 무엇이며 삼독은 어떻게 해서 마음에 물을 들였습니까? <이가서·경남 창원시 귀곡동>

늘 말씀드리지만 전자의 습이 채곡채 곡 생겨져 현재 의식 속에 낱알이 입력이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오직 지금 여기, 고정됨이 없이 찰나로 도는 그 자리 뿐입니다. 그것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공!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이 없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공인데 태초는 어디 있으며 시작과 끝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갑니다.

처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최초란 시간상의 말인데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더럽다 깨끗하다도 없는 거기에 처음이 어디냐고 하신다면 그건 시공에 익숙해진 사람 놀음이 됩니다. 놓고 관하라는 것은 알음알이에 빠지는 것을 막고 네가 죽어 너를 보라는

바랍니다. 발원문을 지어서 소리내어 하고 싶다 하시면서 내면과 외면의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외면 내면이 둘이 아닙니다. 바깥 경계나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습이나 혹은 내면의 소리나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거기로 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드는 구멍 나는 구멍이 한 구멍이지요. 그러나 내면과 외면의 경쟁이란 애초부터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놓고 관하라는 것이나 발원문을 지어 우주 속속들이 울려 퍼지게 하고 싶다는 것이나 다 한자리에 서 나온 것입니다. 내면도 놓고 외면도 놓아야 외면 내면이 둘이 아니게 되지요. 또 소리를 내어 하고싶다 하셨는데 소리를 내든 안내든 발원문은 마음입니다.

소리를 내도 내가 하고 내가 듣는 것이고 소리를 안내도 내가 하고 내가 안듣는다. 내 마음이 알면 우주법계가 다 아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서 발원문이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는 소리를 내면 우주가 다 들도록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통성이 되기때문에, 내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기때문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지 소리가 커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결은 천도식을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먹은 마음없이 한생각 일으킨 것이 중요하지 형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림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생활에 관심이나 나간다면 공경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어문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줍니다.

보발곳: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68

뜻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마음, 마음과 삼독심의 관계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마음이 있으므로 시대도 생겼고 삼독도 일어난 것입니다. 결코 서로 상대하는 별개의 것, 둘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뭇도 없고 시대도 없고 삼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생각, 공경한 것까지 다 나온 곳에 되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고 또 놓고, 놓는다는 그것까지 놓고다보면 발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사람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지상의 어떤 이들을 갖다대어도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식 때문에 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가 어려워 스님께 부탁을 못할 형편이라면 내마음 내마음 조상마음 통달시켜 딱하나 해놓고 지내도 됩니다. 절에서 천도제할때 보면 그냥 의식절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스님이 돌아온 도리를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도리를 알아야 천도가 제대로 되겠지요. 꼭 상을 차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 한그릇 향 하나 올리고 동근 딱 하나라도 됩니다.

주인공에 맡기면 다 잘되는지요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맡기면 잘되는 쪽으로 알아서 해주지요? 그래도 잘못된다면 왜 맡기라 하십니까? <이흥만·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 공부는 무심공부입니다. 어떤 세속의 목적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굳이 이익을 말하자면 진짜 이익,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자유인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놓고 맡기라는 것은 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착을 버리는데 달리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 있어 잘되느냐 못되느냐를 논하겠습니까?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놓고 어떻게 사느냐 하시겠지만 부처님께서서는 다 놓으시고, 다 버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된다, 잘된다는 생각까지 나온 자리에 되놓지 않으면 놓아도 놓는게 아닙니다. 맡겨도 맡기지 않습니다. 잘못이 잘못일까 걱정한다면 어찌 염마를 믿고 몽땅 맡기겠습니까?

발원문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들로 보지말라고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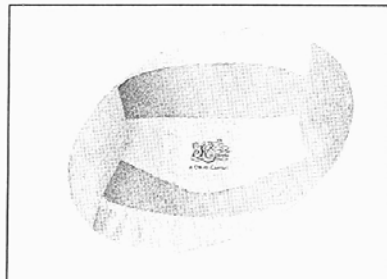
첫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계현관상 도저히 천도식을 올릴 수 없는 이웃에게 제가 책자에 나오는 법식대로 해도 되는지요? 법식중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요? <이여래심·전남 나주시 대호동>

남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가장합니다. 들로보지 않는 공부를 한다니 정진하기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보세요!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치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외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뱃살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들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리반 8기생 모집

본 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님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이해 하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리반 8기생을 모집하오니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1. 모집 마감일 : 8월 28일 (수)까지
2. 모집인원 : 100명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6개월(96년 9월~97년 2월) 매주 금요일 14시~16시
4. 입학식 : 9월 6일(금요일) 14시 본대학 강당
5. 등록금 : 입학금 3만원(교과서 제공), 수업료 월 2만원
6. 특 전 : 교리반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불기 2540년 8월 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 서무과로 문의바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 뒤)
전화 : (051)818-8659, FAX 807-7351

부산불교교육대학